

# 탄 원 서

▶ 사건번호 : 강릉지원 2023가합30051

피탄원인 : 이 도 현

## ▶ 탄 원 인

성 명 신 선 정

주 소

연락처

피탄원인과의 관계 지인 (친구 엄마)

## ▶ 탄원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12살 천사와 같은 아이가 너무나 끔찍한 사고로 갑자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12살 도현이는 저의 아들과는 6살 때부터 맺은 친한 친구로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 같은 교회를 다니며 거의 매일의 일상을 함께하는 자식과 같은 아이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누구나 있겠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은 경험하지 못한,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슬픔이자 고통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사고로 아이와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따뜻한 손을 한번 더 잡아보지 못하고, 한번 더 안아주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내는 것이 조금이나마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 땅에 이루지 못한 꿈을 가득 남겨두고 간 도현이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장님께 간곡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올려드립니다.

## ▶ 탄원 이유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0분 ~ 59분 사이...

강릉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차를 타고 강릉 회산동 쪽 학원에서 교동 택지쪽으로 가던 길...

회산동 떡 방앗간부터 차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할머니께서 “이게 왜 안되지?” 라고 말씀하신 후, 회산동 이디아 삼거리(구, 회산막국수)에서 모닝 차량을 크게 부딪치고 멈추지 못한 채 계속 질주하여 왕복 6차선 도로 반대편 통로에 공중으로 날아가 땅에 그대로 박히면서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고, 도현이가 앉아 있던 자리는 매우 크게 부셔져 결국, 천사같은 12살 도현이는 머리에 큰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차를 운전하시며 주변 차를 피하시며 뒷자석에 탄 사랑하는 손자만 생각하신 할머니의 두려움에 가득한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외치는 소리에 그 안에서 아무말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도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무너집니다.

급발진으로 추측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 손자를 극진히 아끼셨던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 이 된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기막힌 상황이 있을까요..

12월 15일(목) 국과수의 정밀감정이 있었는데 RPM은 5,900까지 치솟았으나, ‘제동장치(브레이크)는 꺼진상태’ 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등이 작동한 영상도 있는데 제동장치가 OFF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국과수는 EDR 장치 오류사례가 있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겠다고 보도가 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족들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과 전문가들의 해석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비정상적인 굉음, 액체분출, 흰 연기, 스키드마크 등은 일반적으로 있는 급발진 증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는 2018년 사고(BMW 차량)였고, 제조사 측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300m 이상 갓길로 운행을 한 것은 다른 차량에 대한 배려행위였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으나 밟히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서 차량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 결론으로 승소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사 차량도 수많은 급발진 의심사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제조사에게 기자가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에 제조사는 “국과수의 결과를 보아야 한다. 답변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영상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차량전문가가 아닌데 차량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무섭습니다.

너무 압담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아들이 떠난 그 사고 현장을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으며 찾아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더... 얼마나 더... 무너져야 할까요... 자식을 잃은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더 무너질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12살, 천사같았던 아이가 갑작스런 사고로... 엄마 아빠도 불러보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소리 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인정이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누가 보아도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분명한 차량결함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반드시 차량결함>임을 밝혀 <제조사의 명백한 책임>을 물고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이 12살 천사를 떠나보낸 도현이네 가족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도현이의 엄마 아빠가 도현이를 떠나 보내며 함께 눈물 흘린 많은 사람들에게 남긴 글을 간직합니다. 그렇게 12살 천사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가족이 꿈 많았던 도현이의 꿈이었던 '정의로운 나라' 를 이루며 도현이의 흔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

하늘나라로 간 12살 천사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밤 9시 26분,

탁구라는 태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도현이

2011년 드라마로 방영하였던 제빵왕 김탁구의 탁구처럼 정의롭고 의리있게 바르게 잘 살아 가라는 의미로 탁구라는 태명으로 불리었고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정말 탁구로 12년 동안 아낌없이 잘 살았습니다.

학교 전교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내년 회장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괜찮다고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는 공약인데.. 초등학생인 너는 괜찮다고 했지만... 본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지켜줘야 해서 약한 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꼭 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너무 예쁜 아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주일마다 소년부 예배시간에 드럼연주자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정말 사랑스럽고 맑은 믿음의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솔직히 너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국 나라에서 더 크게 키우시려고 일찍, 아주 일찍 데려가셨다고 믿으며 견디어 갑니다.

우리에게 온 빛나는 작은 별, 큰 별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 12살 천사의 엄마, 아빠 마음 담은 글 중에서 -

재판장님, 꼭! 도와주세요!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02. 09.

탄원인 신 선 정 (신선정)

강릉지원 제2민사부 귀중

피탄원인 신분증

사진으로 첨부